

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

우리나라는 9월 26~10월 5일까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‘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’를 ‘유기농업은 생명이다’라는 주제로 개최한다. 세계유기농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(IFOAM)은 1972년 프랑스에서 창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유기농업운동단체로 전 세계 유기농업 생산자, 가공업자, 유통업자, 연구자 등 108개국 750여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. 세계유기농대회는 지난 1977년 스위스에서 처음 열린 이래 미국, 독일, 브라질, 호주 등에서 개최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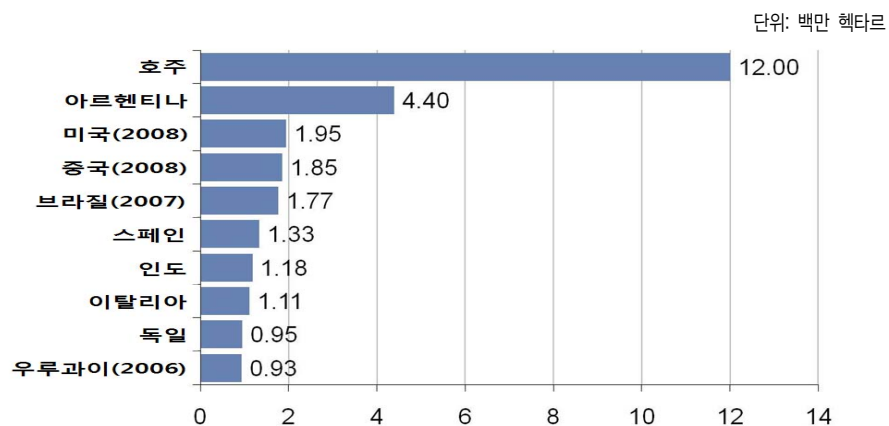
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FiBL과 IFOAM에서 지난 2월에 발간한 “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11”을 바탕으로 세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과 시장규모, 1인당 소비량에 대해 살펴보았다.

FiBL/IFOAM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, 2009년 말 기준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국가는 160개국으로 전 세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3,720만 헥타르로 나타났다. 이는 전년대비 200만 헥타르(6%)가 증가한 것으로 유럽에서 100만 헥타르가 증가하였다. 대륙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오세아니아 1,220만 헥타르, 유럽 930만 헥타르, 라틴아메리카 860만 헥타르로 나타났다.

농경지 대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은 0.9%로 나타났다. 그러나 포클랜드(35.7%), 리히텐슈타인(26.9%), 호주(18.5%) 등은 이러한 비중을 상회하였다.

<그림 1>은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국가 중 재배면적이 높은 상위 10위 국가들로 호주가 1,200만 헥타르로 가장 높으며, 아르헨티나 440만 헥타르, 미국 195만 헥타르 순으로 나타났다.

그림 1 유기농산물 재배면적(200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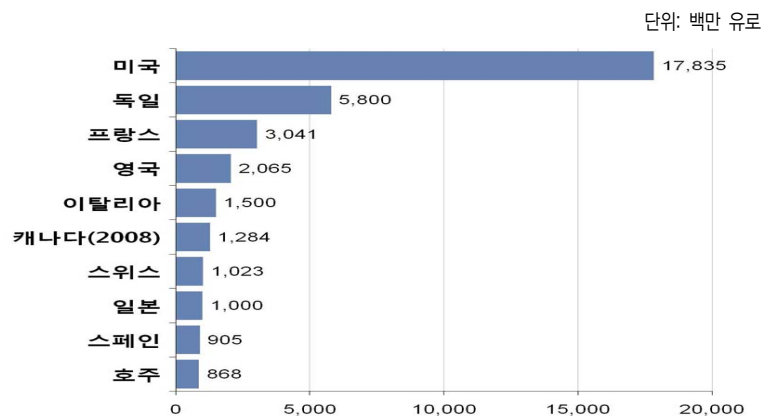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FiBL/IFOAM Survey 2011.

<그림 2>는 2009년도 유기농 식품의 시장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. 시장조사기관인 「Organic Monitor」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기농 식품의 시장규모는 2008년 대비 5% 증가한 400억 유로(550억 달러)로 추정하였다. 특히 유럽의 시장규모는 180억 유로 수준으로, 독일 58억 유로, 프랑스 30억 유로, 영국 21억 유로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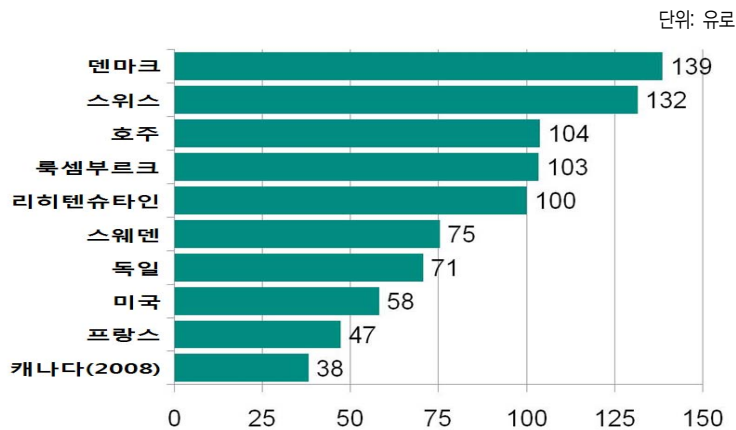
<그림 3>은 1인당 연평균 유기농 식품의 소비액을 나타낸 것으로 덴마크와 스위스는 1인당 130유로 이상을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림 2 유기농 식품의 시장 규모(2009년)



자료: FiBL/IFOAM Survey 2011.

그림 3 1인당 연평균 유기농 식품의 소비액



자료: FiBL, AMI, ORC 2011, based on national sources.

참고자료

FiBL/IFOAM,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11.

2011년 9월 5일 조선일보, 세계 유기농들의 축제 마지막 준비 ‘착착’.

작성자: 윤종열, 이정희.